

ACL 8강전 앞둔 김상식 전북 감독 “산책 세리머니 기대”

‘과거 박지성·이동국 산책 세리머니’ 비셀 고베와 8강전 미드필더 김진규 “무고사는 온몸이 무기…잘 대비해야”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이하 ACL) 8강전을 앞둔 프로축구 K리그 전북 현대 김상식 감독이 또 한 번의 ‘산책 세리머니’를 기대했다. 전북은 22일 오후 4시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 2022에서 비셀 고베(일본)와 대회 8강전을 치른다. 전북은 지난 18일 16강전에서 연장 혈투 끝에 대구FC를 2-1로 꺾고 8강에 올랐다. 고베는 16강에서 요코하마 F.마리노스를 3-2로 제압했다. 김 감독은 경기 하루 전 기자회견에서 “사이타마 스타디움은 선수 시절 성남 소속으로 우라와를 방문했고, 전북 소속으로는 이동국(당시) 선수가 산책 세리머니를 펼쳤던 곳”이라며 “이곳에선 박지성(당시) 선수가 산책 세리머니를 펼친 곳인데, 내일 전북 선수가 산책

세리머니를 또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과 고베의 8강전이 열리는 ‘사이타마 스타디움 2022’는 한국 축구에 ‘산책 세리머니’로 유명한 곳이다. 박지성 현 전북 어드바이저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을 앞두고 일본과 치른 평가전에서 선제골을 넣어 2-0으로 승리했다. 박지성이 득점 후 일본 응원석을 바라보며 천천히 뛰던 ‘산책 세리머니’는 화제가 됐다. 2013년에는 전북의 레전드 공격수 이동국이 이곳에서 산책 세리머니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우라와 레드와의 ACL 원정 경기에서 전북은 이동국의 역전골로 3-1 승리했다. 이동국은 득점 후 박지성처럼 경기장을 여유 있게 돌았다. K리그 ‘디펜딩 챔피언’인 전북은 이번 시즌

선두 울산 현대에 승점 6점 뒤진 2위(승점 49)다. 정규리그 우승이 불투명한 가운데 ACL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김 감독은 “(대구와의) 16강전을 120분 동안 치르며 선수들이 많은 에너지와 땀을 흘리고 8강에 진출했다”며 “고베를 맞아 무조건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선수들과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해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보였다. 이어 “10번 오사카 유야와 2번 이이노 나나 세이의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 또 고베 공격진에는 유럽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많다”고 경계했다. 고베에는 FC바르셀로나(스페인) 출신의 미드필더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와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뛰다 고베로 이적한 무고사도 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미드필더 김진규는 “무고사는 K리그에서 좋은 활약 후 고베로 이적했다. 온몸이 무기인 선수다. 어느 상황에서든 득점할 수 있어서 잘 대비해야 한다”고 했



전북 현대 김상식과 김진규.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다. 또 “이니에스타는 어렸을 때부터 우상이라 경기에 앞서 영상을 많이 찾아봤던 선수다. 상당히 기대된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

장흥FC, 전국추계중등축구대회 우승 ‘헝가래’

주장 김재민 최우수선수상...김동군 감독·김재민 코치, 최우수지도자·우수지도자 상



전남도체육회는 장흥FC가 충북 제천축구센터 1구장에서 열린 2022 추계 전국추계중등축구대회에서 경기 여강글로벌FC를 1대 0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전남도체육회 제공)

장흥FC가 전국추계중등축구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전남도체육회는 장흥FC가 충북 제천축구센터 1구장에서 열린 2022 추계 전국추계중등축구대회에서 경기 여강글로벌FC를

1대 0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장흥FC는 이번 대회 첫 경기에서 안성G 스포츠클럽에 0대 1로 패해 불안하게 출발했다.

하지만 인천풋볼파크를 3대 2로 제압한 뒤 제주서귀포축구센터를 1대 0으로 꺾고 16강에 올랐다. 16강 무대에서 장흥FC는 서울신천중을 4대 1, 8강에서 부산수영SC를 승부차기 접전 끝에 5대 4로 승리를 거두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어진 준결승에서 장흥FC는 경기백마중에 3대 2로 승리해 결승에 올랐다. 마지막 결승 상대는 이번 대회 32골을 기록한 경기 여강글로벌FC로 전반 초반엔 끌려가는 경기를 펼쳤지만 수비 조직력을 앞세워 실점을 하지 않은 채 전반을 마쳤다. 후반들어서는 장흥FC의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5분 만에 김진우가 골을 터뜨렸고 끝까지 지켜내 우승기를 들어올렸다. 주장 김재민은 최우수선수상을 받았으며 노다니엘이 베스트영플레이어상, 김현서가 GK상, 김현강 수비수상, 김동군 감독과 김재민 코치는 각각 최우수지도자와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김동군 장흥FC 감독은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강하게 무장해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코리아더비 무산...손흥민 교체 나가자 황희찬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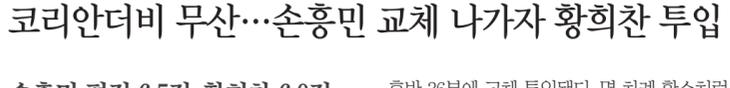
손흥민 평점 6.5점·황희찬 6.0점

기대를 모았던 한국 축구의 간판 공격수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튼)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시즌 첫 맞대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토트넘과 울버햄튼은 20일 오후 8시30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2022~2023시즌 EPL 3라운드를 치렀다. 토트넘이 후반 19분에 터진 해리 케인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이날 경기는 손흥민과 황희찬의 시즌 첫 맞대결 여부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손흥민이 선발로 출전해 후반 31분까지 76분을 소화한 반면 황희찬은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다. 황희찬은 손흥민이 교체로 나가고 5분 뒤인

후반 36분에 교체 투입됐다. 몇 차례 황소처럼 저돌적인 돌파를 선보였지만 공격포인트를 올리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손흥민은 전반에 고전했지만 후반 초반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흐름을 찾았다. 후반 17분에는 골대를 때렸고, 19분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키키로 나서 케인의 골에 관여했다. 유럽축구전문 후스코어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6.5점, 황희찬에게 6.0점을 부여했다. 둘은 지난해 9월 리그컵 32강전에서 처음 대결했고, 올해 2월 2021~2022시즌 25라운드에서 두 번째로 붙었다. 세 번째 대결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공교롭게 둘은 시즌 개막전 도움 이후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손흥민은 사우샘프턴, 황희찬은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도움을 올렸다.

김하성 침묵...샌디에이고, 워싱턴에 홈런 2개로 역전승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이 4번의 타석에서 침묵한 가운데 소속팀은 조시 벨과 후안 소토의 홈런 포로 워싱턴 내셔널스에 역전승을 거뒀다. 샌디에이고는 2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펠트 파크에서 열린 워싱턴과 2022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홈경기에서 벨의 동점 홈런과 소토의 역전 결승 홈런으로 2-1로 이겼다. 샌디에이고는 조 머스그르버가 2회초 레인 토마스에게 선제 솔로홈런을 허용했지만 5회말 벨이 동점 솔로홈런을 터뜨리며 이어 7회말에는 소토가 결승 홈런을 날리면서 1점차 승리를 거뒀다. 특히 벨과 소토는 모두 워싱턴에서 이적해온 선수들이어서 남다른 인연을 느끼게 했다. 반면 김하성은 전반에 이어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2회말 선두타자로 나선 첫 타석에서 중견수 벤틀 로블레스에게 잡히는 플라이로 몰려나 김하성은 3회말 2사 만루에서 초구를 공략, 금지막한 타구를 날렸지만 좌익수 알렉스 풀에게 잡혔다. 김하성은 5회말 3루수 앞 땅볼로 몰려났고 8회말에도 유격수 땅볼에 그치며 끝내 2경기 연속 안타를 때려내지 못했다. 김하성의 타율은 0.254에서 0.251로 낮아졌다.



프로축구 K리그2 광주FC 헤이스 (사진 = 프로축구연맹 제공)

‘헤이스 멀티골’ 광주, 이랜드에 4-0 완승...10G 무패

프로축구 K리그2(2부) 단독 선두 광주 FC가 서울 이랜드FC를 완파하고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었다. 광주는 20일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랜드와의 하나원큐 K리그2 2022 34라운드에서 헤이스의 멀티골, 이건희, 엄지성의 골을 보태 4-0으로 승리했다. 최근 10경기에서 5승5무로 무패 행진을 이었다. 선두 광주는 19승9무3패(승점 66)로 2위 FC안양(승점 52)과 승점 차를 14로 크게 벌렸다. 이랜드는 5승14무10패(승점 29)로 8위에 머물렀다. 전반 22분 헤이스의 페널티킥 골로 기선 제압에 성공한 광주는 전반 29분 이건희의 추가골로 2-0 리드를 잡았다. 전반을 2-0으로 앞선 광주는 후반 23분 헤이스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엄지성은 후반 27분 네 번째 골로 승리를 자축했다.

광주는 20일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랜드와의 하나원큐 K리그2 2022 34라운드에서 헤이스의 멀티골, 이건희, 엄지성의 골을 보태 4-0으로 승리했다. 최근 10경기에서 5승5무로 무패 행진을 이었다. 선두 광주는 19승9무3패(승점 66)로 2위 FC안양(승점 52)과 승점 차를 14로 크게 벌렸다. 이랜드는 5승14무10패(승점 29)로 8위에 머물렀다. 전반 22분 헤이스의 페널티킥 골로 기선 제압에 성공한 광주는 전반 29분 이건희의 추가골로 2-0 리드를 잡았다. 전반을 2-0으로 앞선 광주는 후반 23분 헤이스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엄지성은 후반 27분 네 번째 골로 승리를 자축했다.

“시원섭섭하네요” 양궁 2관왕 장혜진 은퇴

희망기 대학·실업대회 끝으로 선수 생활 마감...“미래는 앞으로 고민할 것”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양궁 2관왕에 빛나는 장혜진(35·LH)이 은퇴한다. 장혜진은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울산문수국제양궁장에서 열리는 올림픽폐기물 제39회 희망기 대학·실업 양궁대회를 끝으로 활을 내려놓는다. 장혜진은 21일 “무언가 시원섭섭한 마음이 든다. 은퇴가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다”고 했다. 10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장혜진은 리우올림픽에서 한국의 양궁 사상 최초 올림픽 전 종목 석권을 이끈 주역이다. 여자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대기만성의 아이콘이다. 2012 런던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4위에 머물러 3명에게 주어지는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다. 학창 시절에도 쟁쟁한 동기, 선후배들 사이

에서 빛을 보지 못했다. 초등학교 4학년에 양궁을 시작했지만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국가대표가 됐다. 그러나 장혜진은 런던올림픽 선발전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았다. 4년을 심기일전해 리우올림픽 선발전에서 3위로 턱걸이 해 국가대표가 됐다. 주변의 예상을 깨고 리우에서 가장 빛났다. 장혜진도 “리우올림픽에서 한국이 전 종목을 석권했다. 양궁 선수로 있으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인 것 같다”고 기억했다. 이밖에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장혜진의 별명은 ‘팡공’이다. 158cm의 작은 키 때문에 ‘팡공’이었는데 주변에서 팡공 중에 최고가 되라는 의미로 ‘팡공’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장혜진은 “아직 은퇴 이후를 생각한 건 없다. 현역 선수에서 은퇴하지만 스포츠계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에 대해 앞으로 고민하고 싶다”고 했다. 대한양궁협회는 이번 대회 개최식에서 장혜진의 은퇴식을 열 계획이다. 협회는 “한국 양궁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국가대표 선수로 헌신한 장혜진 선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할 것이다”고 했다.